10.35221/tamla.2022..71.002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진 관 훈*

Ⅰ. 서론
Ⅱ.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기원
Ⅲ. 제주도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Ⅳ.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
Ⅴ.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지역 화전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주지역 화전·화전 농업·화전민 연구가 향후 제주 근대사 연구의 핵심과제라는 것이 본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주지역 화전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다. 특히 한반도에서 행해진 한국화전 농업이 제주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원형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등에 관한 기초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과 화경 농법, 화전민 등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도 화전 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는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초단계로 시도하는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활용' 연구를

* 제주테크노파크(adel@jejutp.or.kr)

www.kci.go.kr

위해 화전민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전민,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전민 농법, 화전민 가옥, 화전민 숯 굽기와 사냥하기, 약초 캐기 등은 화전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제주 화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통해 제주 화전과 화전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 다음, 제주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콘텐츠제작과 다크 투어리즘 중심으로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제주도 화전, 화전민, 화전 문화, 화전 문화콘텐츠, 다크 투어리즘

Ⅰ. 서론

최근 들어 진정한 제주지역의 근대사 연구는 화전연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나고 있다. 화전·화전 농업·화전민 연구는 제주 근대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산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화전연구와 사회적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 화전소멸이 시기가 빨랐고, 제주 민란과 '제주 4·3'으로 인해 화전에 대한 역사적·개인적 인식이 왜곡되고 굴절된 탓으로 여겨진다.

1990년대 이후 지방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고조되면서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는 그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라 시대부터 생겨났다고 추측되는 한국 화전 농업이 제주도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지, 그리고 그 원형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등에 관한 기초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kci.go.kr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화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 한반도 지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루어진 조사 보고서이다. 善生永助(1926),『火田の現狀』; 조선총독부산림국(1928),『火田調査報告書』; 小泉昇平(1917),「火田民生活狀態調査」,『조선연구자료』; 小田內通敏(1923),『朝鮮の火田民』이다. 둘째, 1960년대 이후 화전 정리사업에 관한 보고서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화전 정리사업의 결과 보고서인 강원도청(1966),『화전정리사』;『화전정리사』(1976), 산림청(1997),『화전정리사』 등이 있다.

셋째, 한국화전, 화전농업의 지리적 분포와 화전민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논문이다. 조동규(1966),「한국화전의 분포」,『지리학』 제2호; 김상호(1979),「한국 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서울대 논문집』 제4집; 宮塚利雄(1980),「한국 화전민에 관한 사적 연구」,『단국대 학술논총』 제4집; 옥한석(1985),「한국의 화전 농업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 중에서 제주도 화전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상호(1979)는 화전 농업의 원류로 근재형(根栽型) 화경(火耕) 농업이 존재했었다는 근거로 제주도의 '우녕밭'을 예로 들고 있다. 제주도 우녕밭이 화경 농업의 정원경작에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 화전에 관한 최초의 조사연구는 1987년 소농(素農) 오문복(吳文福)의 글이다(오문복, 1987, 215-221쪽). 이 글에서 그는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발이요, 농경문화의 원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정재・진종헌은 물영아리오름 화구호 습지 깊이 4m까지 퇴적물을 확보해 2cm 간격으로 화분과 세립 탄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편 유입량이 115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250~1300년 정점을 보인 뒤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려 말 중국 원나라가 제주에 주둔해 목마장을 조성하면서 중산간에 불을 질러 나무를 없앤 대규모 화입(火入)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전 농경으로 이미

www.kci.go.kr

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김상호(1979)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박정재・진종헌, 2019, 153-163쪽).

이외에 일제 강점기 혹은 그 이후 제주도 연구물에서 부분적으로 화전이 거론되고 있다.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朝鮮總督府(1933), 『朝鮮の聚落』; 朝鮮農會(1944), 『朝鮮農業發達史』; 久間健一(1950), 『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동경농업종합연구소; 松山利夫(1986), "濟州島の佃作農耕文化",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과 화경 농법, 화전민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화전 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서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 다음, 제주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를 간추려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안, 즉 문화적 콘텐츠 제작과 다크 투어리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계기 삼아 제주 화전에 관한 역사 인식이 넓어지고 학계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기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 화전에 관한 처음의 조사연구는 1987년 소농 오문복의 글이다(오문복, 1987, 215~221쪽).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 태초에 신농씨(神農氏) 쟁기(耒)와 보습을 만들었고, 후직(后稷)이가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는 곧 쟁기와 보습을 사용한 농사는 벌써 소의

www.kci.go.kr

힘을 빌렸다는 말이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농사였을까? 아마도 화전 농업이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화전 농업은 왜정치하(倭政治下)가 되자 공토(公土)가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면서 몰락하였으나 무자년 난리(제주 4·3) 때까지 일반농가에서 부업으로 남아 있었다.

화전이란 '곶'(藪)[1]의 평지에다 불을 지른 다음 거기에 곡식을 씨 뿌려 짓는 농사이다. 한라산 밀림에다 불을 지르면 불길이 한없이 번져 산야가 전부 타버릴 것 같지만 밀림 속에는 매년 떨어져 쌓인 나뭇잎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언제나 습기가 있으므로 멀리 불이 번져 나가지 아니하고 또 나무들도 모두 낙엽수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 놓고 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밀림이 아닌 산야에 해충을 죽이고 부드러운 풀이 자라서 우마가 뜯어먹기 편하게 하려고 전부 방화하여 태웠었다. 방화가 금지된 것도 십 년도 채 못 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가축을 사용해 밭을 갈기 이전에는 따비로 밭을 일구었다. 쟁기의 뜻도 원래는 소로 밭을 가는 도구가 아니라 손으로 밭을 가는 구부러진 나무다. 그러니 신농씨가 가래와 쟁기를 만들기 이전의 경작방법은 화전이었다. 그리고 농기구도 '뫼호미'[2], 따비, 돌도끼, '낭갈래죽' 들이었다. 이어 소농 선생은 돌도끼가 수렵에만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기 쉽지만 줄기가 굵은 강낭콩 넝쿨을 돌도끼로 베어냈으며, 지금도 들에서 연장이 없을 때는 칡이나 다른 넝쿨을 돌로 잘라 쓰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속하여 그는 "세상이 문명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무위이화(無爲而化)[3]하던 화전민들도 점점 사라져갔고 그와 비례하여 '곶' 속의 순풍도 변하여졌다. 씨 뿌려 얻어지면 다행이오, 얻지 못하여도 누구를

---

1) 한라산의 밀림

2) 뫼호미=미호미=메호미=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나대=나타(なた, 鉈)

3)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한다, 즉 인위적인 꾸밈이 없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노자(老子)』 57장에 나온다. 노자는 이 글에서 금지하는 일이 많으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편리한 문명의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미해지며, 지혜와 기술이 향상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고 말하면서, 인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연 순리에 따르는 무위의 교화를 설명했다. '무위자화'라고도 한다.

www.kci.go.kr

원망하지 않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었다. 화전에 씨 뿌릴 때는 꼭 얻어지기를 바라서 뿌린 것도 아니었기에 가을에 곡식 한 알의 수확이 없어도 걱정거리가 될 수 없었다.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라며 거듭 제주 화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상호(1979)는『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보는 탐라는 양(良)·고(高)·부(夫) 삼 씨족집단이 나누어 사는 일·이·삼도(都, 徒)가 모여 이루어진 촌락이라 근재형 화경 농업의 개척단위와 극히 유사해 보이며, 이뿐 아니라 토란과 마(署)는 종래 주요 치포(治圃) 작물로 여겨져 왔는데, 이들이 근재형 화경 농업의 2대 작물인 타로, 얌에 각각 대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38권 제주목 건치연혁조(建治沿革條)를 인용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신라와의 관계가 시작될 무렵 제주도에서는 제주읍 등 일부 지역에서 농업 정주가 이루어졌고, 이 지역을 고 씨라는 존장(尊長)이 통솔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셋으로 나누어져 각각 동일 씨족에 의해 나눠 살고 있었다. 주변 촌락에는 농경 양축지(養畜地)가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耕牧交替方式)[4]이 진행되었었다고 추측된다.

이뿐 아니라 당시 그런 농경을 이끈 생업단위가 정주 가구이어서 씨족 단위가 기능하였다. 나아가 탐라같이 씨족 단위를 모은 촌락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 화경 농업의 개척 거주단위와 유사했다. 그리

4) 농경과 목축, 방목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행하는 생산양식으로, 이는 제주지역 잣성(場城)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름에는 중잣성 위로 우마를 올려 방목한 뒤 중잣성 아래 하잣성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다시 하잣성으로 우마를 내린다. 토지이용의 방식으로만 보면 삼포식과 유사하지만, 농업에 있어 우마의 결합방식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고 이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단위가 분화되면서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져 개척형 화전 농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제주도 초기개척은 신라 시대는 물론 그 이전에도 화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김상호, 1979, 119쪽).

이어서 그는 『고려사고기(高麗史古記)』를 인용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농업 정주가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고 난 뒤 촌락 주변에는 농경 목축지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촌락 주변 농경 목축지가 어떻게 경영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당시 경목교체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농경을 이끈 생산단위는 정주 가구이면서 씨족 단위가 기능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주지 주변의 윤경(輪耕) 화전 확대를 가져오는 방식의 화전경영 단계에 앞서, 1차적으로 이동에 의한 거주 정착과 경지 개간을 이루는 화전경영 단계가 있었다. 후자를 씨족 단위 이상의 촌락 단위가 이끌었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 화경농업이 개척시대 거주단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단위가 분화되며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형태가 제주도에 있었던 개척형 화전 농업이라 짐작된다.

이후 제주도 화전 역시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農耕地化) 정책으로 경목교체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목 교체 사례는 농경 진화단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우이다(久間健一, 1946, 86-88쪽).

2019년 박정재・진종헌은 물영아리오름 화구호 습지 깊이 4m까지 퇴적물을 확보해 2cm 간격으로 화분과 세립 탄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편 유입량이 115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250~1300년 정점을 보인 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려 말 원나라가 제주에 주둔해 목마장을 조성하면서 중산간(해발 200~600m)에 불을 질러 나무를 없앤 대규모 화입(火入)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전 농경으로 이미 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

www.kci.go.kr

다는 김상호(1979)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박정재・진종헌, 2019, 153-163쪽). 김상호는 화전 농경으로 조성된 초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원 점령 이전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 점령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주로 목축의 결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당시 제주 농경민들은 화전 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농경을 버리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와 오름 들을 보면서 목축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가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뿐 아니라 중산간 전체에 방목 필요성이 강력하게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위적 대형 화입이 이어졌다고 이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 화전은 경목교체방식과 아울러 고려 시대 목장설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中間舊牧場地帶)[5] 설치와 이 중간구목장지대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를 통해 제주도 화전 기원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탐라에서 삼별초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탑자적(塔剌赤)을 탐라 다루하치(達魯花赤)에 임명하고 이곳에 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려사』권 57, 志 11 地理 2 탐라조). 당시 목장 설치장소는 수산평이었다(『동국여지승람』권 38, 濟州牧 古跡條). 이렇게 시작한 목장설치는 몽고의 의도에 따라 확대되어, 고려 성종 24년 산 중턱(山腰) 이하에 국영 10소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탐라에서 삼별초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했다. 한라산 중턱을 돌며 국영목장이 설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

5) 토지이용 관계를 고려해 산간(산요, 山腰) 구화전지대, 해안지대는 해안 농경지대, 중간지대를 구목장지대라고 함.

www.kci.go.kr

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을 방목지로 경영하다 보니 도민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급기야 조선 세종 때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경작하도록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넓은 지역이 필요한 방목 중심 경영을 위해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경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5번째 기사에,

> 兵曹據濟州敬差官李鳴謙啓本啓: "本州人多地窄, 若新舊牧場, 竝皆禁耕, 則居民生理可慮。請漢拏山牧場及舊牧場, 聽民耕種, 互相陳荒, 移放馬匹, 則民生馬政, 兩得其宜" 從之
>
> 제주도 옛 목장에서 방목을 허락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제주 경차관(敬差官) 이명겸(李鳴謙)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좁습니다. 만약 신구목장을 한꺼번에 다 경작을 금지한다면 주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청하옵건대, 한라산목장과 옛 목장을 백성에게 경종(耕種)하도록 허가하고, 서로 교대하여 묵혀서 마필(馬匹)을 방목하게 한다면 민생과 마정(馬政)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1653년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펴낸 『탐라지(耽羅誌)』 풍속조(風俗條)[6]에,

> 탐라는 땅이 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개간하는 데 반드시 우마를 구하여 전토(田土)해야 한다. 그래도 연경(連耕) 2~3년이면 부득이 새로운 토지를 개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은 두 배로 들지만, 수확은 적어 많은 백성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경작할 때 우마를 구하여 전토를 답지(踏之)하는 농법이 전통적으로 제주도에 속전(粟田) 경작에 있어 파종 후 소나 말로 경토(耕土)를 진압(鎭壓)하는 풍습[7]이

6)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이 전라도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653년 편찬한 지방지, 읍지이다. 풍속조에 외지인 관점에서 본 제주도의 독특한 환경 및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7) 강우량이 적은 우리나라 관서 지방에서 봄철 가뭄 때에 관개시설 없이 행해지

www.kci.go.kr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 소와 말을 이용하는 농경풍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삼국지한전(三國志韓傳)』에 우마에 관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에 일찍부터 말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 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난 이 농경풍습에 관해서는, 한라산 폭발에 의한 화산회토 입자가 아주 미세하여 이곳 바람에 날리기 쉽고 수분 보전에도 부적당하여 좁씨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난 경토진압(耕土鎭壓) 혹은 마필 이용이 경목교체방식의 토지이용을 발달시켰다고 보고 있다(김상호, 1979, 119쪽).

다음으로 『성종실록』 14권, 1472년 성종 3년 1월 30일 정묘 5번째 기사에,

> 濟州點馬別監事目: "濟州四面濱海, 獨一漢拏山中峙, 如二連木, 安息香, 柚子, 榧子木, 國用最切, 而皆出於此山近來田夫厭舊務新, 斫而耕之, 實爲可慮。請令牧官親審, 定限立標, 禁耕伐, 務令滋息"

> 제주점마별감의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제주는 사면이 해변이고 홀로 하나의 한라산만이 가운데에 우뚝하여 두 개의 연한 나무(連木)와 같은데, 안식향(安息香)·유자(柚子)·비자목(榧子木)은 국용에 가장 절요한 것으로, 모두 이 산에서 나옵니다. 근래에 들어 농부(田夫)들이 옛일을(본래의 토지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에(새로운 토지를 만들려고) 힘써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개간)을 하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목관으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한계를 정하여 표지를 세워 경작(개간)하고, 벌목하는 일을 금하여 육림(滋息)에 힘쓰게 하소서"

이어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9일 신묘 4번째 기사에,

는 건조 농법이다. 즉 보리나 조 등이 성장을 시작하는 봄철에 토양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서 작물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소나 말로, 혹은 사람이 끄는 섬피로 땅을 밟아준다.

www.kci.go.kr

濟州武士洪鎭夏等上疏, 陳本州廢牧場起耕之請, 又陳本島人收用, 一如西北之例。又陳前日試才文科李龜濟拔去之冤。又請申飭二軍門將官, 各一窠收用本島之人批曰: "疏陳令該曹稟處。李龜濟事, 疏請猥濫矣"

제주 무사 홍진하 등이 제주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할 것 등을 청하다. 제주의 무사 홍진하(洪鎭夏) 등이 상소하여 본주(本州)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하게 해 줄 것을 청하고, 또 진달하기를, "본도(本島) 사람도 한결같이 서북(西北) 사람의 예에 따라 수용할 것을 청합니다."

이 내용은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농사짓도록 해주자는 의미이다. 넓은 지역을 요구하는 방목으로 인하여 고려말 조선초 제주도 인구가 포화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른 식량 확보가 생존문제가 되자 목장의 농경지화 정책과 경목교체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제주도 화전 발생 과정을 정리해 보면, 예전부터 제주도 중간지대는 수목 생장에 기본이 되는 기온이나 땅의 습기로 보아 산간지대 못지않은 지대인 만큼, 중간지대 이하 역시 삼림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중간지대의 초지화는 적어도 고려 충렬왕 시기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인위적 초지화가 화전 농업 전개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김상호, 1979, 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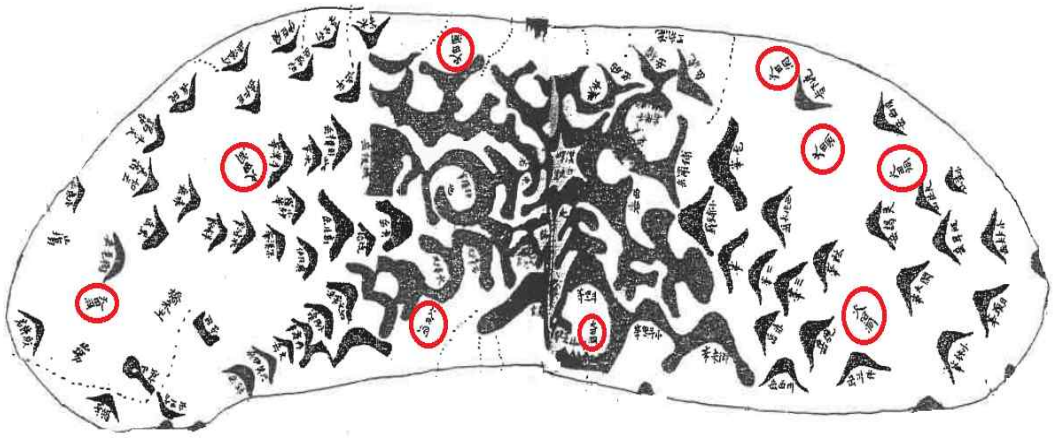
한라산 기슭 구목장지대 위로 올라가면 산간지대 화전지역이 있다. 여기에 예전 화전 지대가 분포한다(久間健一, 1946, 86쪽). 구목장 설치 이전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통틀어 화전 개척이 진행되어 윤경(輪耕) 초지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장지대가 설치되었고 산간지대에서는 그대로 화전 농업을 반복해 이어갔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히 중간, 산간, 해안지대를 포함한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김상호, 1979, 120쪽).

이후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해 나갔다. 원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國馬)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www.kci.go.kr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화전을 개간하러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화전동(火田洞)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어 1894년 공마 제도가 폐지되어 목장토 개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화전이 확대되었다.

1899년 5월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발간한 『濟州郡邑誌』 첫머리에 수록된 「제주지도」에 '화전동'이 등장한다.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화전민을 대상으로 화전세를 징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전세 징수 대상인 화전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보려는 의도에서 화전동 위치를 표시했다. 이 지도에는 상잣성 이상에 분포한 화전동이 9개 나타난다. 국마장 상한선인 상잣성보다 높은 해발 300~600m 일대를 중심으로 화전이 이루어진 결과 제주목 지역에 4개, 대정현 지역에 3개, 정의현 지역에 2개의 화전동이 존재했다(일소장 위 산장 화전동, 삼소장 위 삼의악 북쪽 화전동, 사소장 위 능화동 서쪽 화전동, 오소장 위 안천악 북쪽 화전동, 칠소장 위 대병악 동쪽 화전동, 팔소장 위 녹하지 서쪽 화전동, 팔소장 위 녹하지 동쪽 화전동, 구소장 위 처암 동쪽 화전동, 산장 위 두한봉 일대 화전동).



〈그림 1〉 『제주군읍지』 「제주지도」(1899)에 등장한 9개 화전동

www.kci.go.kr

한편 제주 순무어사 박천형(朴天衡)의 『서계(書啓)』(1777~1794년) 49-53쪽에 의하면,

> "산둔(山屯) 3장(場)은 둘레가 90리이고 지세가 평탄하여 물은 여섯 군데 있고 간간이 숲이 있으나 백성들[入耕者]이 들어가 경작하는 곳도 많으니 마필이 살찌지 않고 수가 줄어 6백여 필 밖에 안 된다. 목장의 범경(犯境)은 국법으로 금하는바 제멋대로 목장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조정에 건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전 지역의 목장화로 인한 토지 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간 구목장지대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목장 안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목장전', '장전(場田)'이라 부르고 공한지나 황무지를 다시 개간, 경작하는 토지를 '가경전(加耕田)'이라 했다.

이에 비해 화전은 중산간 지대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작하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 경작을 할 경우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기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 '가경세(加耕稅)', '화전세'이다. 실제로 1841년 제주 목사 이원조는 『탐라록(耽羅錄)』,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서 당시 화전세를 받아 서당 경비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Ⅲ. 제주도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1. 화전민의 생활

화전민[8]들은 대개 생활이 어렵거나 농사지을 땅이 없어 동네에 살

8) 소농 선생은 한동(漢東), 상도(上道), 송당(松堂), 선흘(善屹), 해안(海安), 명도암

www.kci.go.kr

수 없기에 산으로 올라가서 '외지둥에 청새로 인 막사리'를 지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반찬으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나물이나 들짐승 고기를 먹었으며, 참기름과 소금이면 족했다. 참기름은 약재로도 이용하므로 화전 생활에 꼭 있어야 했고 소금은 양념이었다. 창출과 같은 약재를 캐어 소금을 바꾸어 먹으며 살기도 했다. 신은 '끅신'을 신고, 옷은 '가죽물체'를 입고 살았다(해안동 80대 남성, 작고).

예전에는 대대로 화전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집도 있었다. 화전마을은 눈이 많이 쌓인 때 노루 사냥꾼들의 노점(露店)이 되기도 하였다. 상지(相地)[9]하러 다니는 논산객(論山客) 또는 약초 캐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화전마을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은 그 대가로 소금이나 '자리젓' 등을 가지고 왔다(삼달리 80대 남성, 작고).

화전민들은 화전 농사를 하여 부업으로 틈틈이 목자(태우리) 노릇을 했다. 그들은 들로 산으로, 안 돌아다녔던 곳이 없다. 다니다가 오무룩한 땅[10]이 있으면 거기에 불 질러 두었다가 봄이 되면 콩 씨나 팥 씨를 몇 알 뿌려두기도 했다. 가을이 되어 다행히 열매가 달렸으면 따오고 안 달렸으면 부싯돌 닳아짐만 손해 볼 뿐이다. 풍년이 될 때는 팥 대여섯 섬, 메밀 여남은 섬 싣고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소에 싣고 올 때 곡식 알맹이들이 나무에 걸려 떨어져 흘러버려 손해 볼 때도 왕왕 있었다(의귀리 80대 여성, 작고).

화전은 다른 농사에 비해 공이 덜 들어 좋다. 알맞은 땅만 골라 불을 질러 씨 뿌려둔다. 다행히 풍작이 되면 거둬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종자만 손해 보면 그만이다. 그러나 나무를 베어내는 일과 곡식을 곳밖으로 운반하는 일은 아주 고되었다.

화전 농사는 씨를 뿌린 후 싹이 돋아 땅에 뿌리가 붙을 때까지만 큰

(明道庵), 불그믓(造水2리), 상창(上昌), 한남(漢南), 수망(水望), 삼달(三達), 고잡(高子: 水山2리) 등지의 촌로들에게 들었던 화전 농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였다.

9) 상지는 땅의 기운을 살펴서 경작지를 선정하고, 도읍을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땅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조금 얕고 평평한 곳, 즉 화전에 적합한 곳

www.kci.go.kr

비가 내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풍작이 된다. 땅에 오랫동안 나뭇잎이 깔려 썩은 데다가 쌓인 나뭇잎을 태운 재까지 흩어져 있어 땅이 기름지기 때문이다. 털끝만치라도 땅에 뿌리가 붙기 시작하면 아주 잘 자라 팥이나 콩 한 나무에 한 되씩 수확할 때도 있었다(상효리 80대 남성, 작고).

화전은 땅을 쟁기로 일구지 않아도 된다. 돌이 많이 박혀 있어 쟁기로 갈거나 일굴 수 없기 때문이다. 씨 뿌린 후 따비로 띄엄띄엄 찍어낸 후 그 주위에 널려 있는 나뭇잎 썩은 흙을 뿌려두면 그만이다. 화전에는 원래 잡초 씨앗이 없어 잡초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면 잡초인 방동사리(방동사니)가 나기 시작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난다. 방동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토맥(土脈)도 거의 메말라가기 마련이라 작물이 되지 않는다(구억리 80대 남성, 작고).

화전마을 사람들은 초가을이 되면 화전으로 올라가서 추수한다. 대부분 화전이 높은 지대에 있어 가을이 일찍 오기 마련이다. 여러 날 묵어야 할 경우, 서 있는 나뭇가지를 쳐내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임시 오두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며칠을 묵는다. 화전 곡식은 땅이 기름져서 늦게 익는다. 그러기 때문에 곡식을 베어 여러 날 말려야 타작할 수 있다.

타작할 때는 띠(矛)를 베어다가 두껍게 땅에 깔아 놓고 그 위에서 타작하면 땅으로 곡식이 새어들지 않는다. 곡식이 많지 않은 경우, 덕석을 깔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고 곡식을 자그마하게 묶어 단을 만들고 그 돌에 쳐 타작한다. 곡식 묶는 줄은 보통 드름 넝쿨이나 졸갱이(유름) 줄을 사용하였다(해안동 80대 남성, 작고).

화전 농사에는 농기구가 많이 필요 없다. 나무를 베는 데 '뫼호미' 하나면 족하다. 또 검질(잡초)을 매지 않으니 골갱이(호미)가 필요 없었다. 곡식 벨 때도 뿌리가 너무 굵어 낫으로 베어내기 어려우면 '뫼호미'로 찍어냈다(한남리 80대 남성, 작고).

화전에서 많이 재배하는 곡식은 두불콩과 강낭콩이다. 한 발에 한 알씩만 심어두면 퍼져 강낭콩 한 나무에 두 되 열릴 때도 있다. 화전에서

www.kci.go.kr

는 보통 담배가 잘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한라산에 가랑비(짐벵이)가 많이 오므로 곡식 말리기 어렵다. 그래서 '엄막'(임시 건물)을 지어 말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을 느꼈다(동광리 80대 남성, 작고).

간혹 화전민들이 의외로 횡재할 때도 있다. 추수하러 갔다가 갑자기 산에 눈이 일찍 내려 엄막에 머물러 있는데, 노루가 눈을 피해 엄막에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때는 그 노루를 잡지 않는다. 예로부터 스스로 울안에 들어온 짐승은 잡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간혹 노루가 곡식을 먹어 버릴 때도 있다. 한번 먹으면 맛을 알아 자주 온다. 그때는 덫을 놓아 잡는다. 노루 고기는 산에 제사 올릴 때 제물로 쓰고 피는 보신용으로 팔 수 있기에 노루를 잡으면 여러모로 횡재하는 셈이다.

어떤 때는 들소(야우, 野牛)를 잡기도 한다. 들소는 주인 없이 산속에 야생하는 소이다. 일정한 곳에 살지만, 동작이 빠르고 사람을 보면 날쌔게 피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잡을 수 없다. 사냥개가 소를 쫓게 하여 한나절을 지나면 들소는 힘이 다하여 물 있는 곳을 찾아가 물 마시는데, 물 마시는 그때 줄을 던져 잡기도 한다. 그런데도 잡지 못하면 개가 다시 쫓게 하여 들소가 힘이 다 빠져 버렸을 때 쫓아가서 줄을 던져 잡는다(남원리 80대 남성, 작고).

옛날에는 산속에 연가호(煙家戶)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다.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 화전을 하다가 일제가 산과 들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화전을 못하게 하였다. 조선조 말엽에는 화전에 세금을 받아간 때가 있었다. 감관이 나와서 화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세곡(稅穀)을 매기면 동임이 받아 관에 바쳤다. 신축년 난리[11] 이전에는 콩 열 말밖에 소출이 안 나온 화전에 콩 닷 말을 내라고 하여 그 값으로 대신 '지다리(오소리) 감틔(털모자)'를 바쳐 세곡을 면제받을 일도 있다. 그러다 신축년 난리 후 감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화전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따빗밧'[12]을 잘 갈아야 한다. '따빗밧'을

11) 1901년 이재수의 난.

www.kci.go.kr

가는 사람은 하루에 '외말치'(한 말 솥) 밥을 거뜬히 먹어치웠다. 두 말 띠기(두 말 솥) 밥을 혼자서 먹어 치우는 사람도 있었다. 대개는 화전으로 큰 재미는 못 본다. 하지만 서귀창[13]에 환상(還上)[14] 빚지러 안 갈 정도로는 살 수 있었다.

'곶'에서는 양하(앙애)나 초기(버섯)를 따다 반찬을 하고 화전에서 피를 베어 우마에 싣고 오다 졸갱이(유름)나 머루를 한 아름 따다 주면 아이들이 날듯이 좋아했다. 가을 화전 밭에 피를 베어 쌓아두면 밤에 싣고 가버리는 도둑이 있었다. 그래서 밤에 핏가리(눌) 옆에서 자며 지킬 때도 있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날씨 따뜻해져 눈이 녹을 때 추수한 피를 실으러 화전으로 갔다(교래리, 80대 여성, 작고).

2. 방애(放火)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 한다[15]. 방애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이다. 제주에 오름과 산야가 많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장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거나 방목 목적으로 불을 놓아 초지를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 놓기'라 한다. 화전은 개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

12) 따비로 일굴 수밖에 없는 밭.

13) 서귀진은 조선 시대 설치된 제주 도내 3성 9진 중 하나다. 『세종실록』에 1439년 한승순 목사가 홍로현에 성을 쌓았다고 최초로 기록돼 있으며 『탐라지 초본』(1841, 이원조)에 1590년 이옥 목사가 지금의 서귀동 713-3번지 일대에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서귀진에는 동헌, 병기고, 서귀고, **서귀창**, 객사 4동, 동·서 문루, 우물터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14)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로, 환상 또는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15) 방애를 화입(火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화입은 일본어 火入れ(ひぃれ)에서 유래한다

www.kci.go.kr

는 경우를 말한다. 들불 놓기는 공동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지를 마련하는 경우이다. 들불 놓기는 오름이나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다. 예전 제주도에 많은 오름이 민둥산인 이유가 이러한 방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산소에 산 담을 두른 이유도 마소 출입을 방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들불 놓기로 인한 분묘 훼손을 막기 위해서로 보인다.

방애는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날 때 이루어졌다. 새 풀이 돋아나면 마소를 방목해야 하기에 그 전에 들불 놓기를 한다. 이때 들불 놓기를 하면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이 잘 돋아난다. 오늘날처럼 농약도 없고 대대적인 초지 조성작업을 벌일 형편도 못 되기 때문에 마른 풀과 해충을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은 들불 놓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들불 놓기는 해마다 마소 방목 전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였다.

공동목장에 들불을 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적절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 동원 계획을 짠다. 들불 놓는 날이 되면, 날씨를 보아 바람 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가늠하며 불을 놓고 번짐을 방지하였다. 어떤 마을에서는 들불 놓을 지점 외곽에 물도랑을 쳐서 불 번짐을 막았다고 한다.

공동목장 방애는 진드기 등 병해충을 구제하고 가시덤불,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질의 목초 생산과 방목공간 확대가 가능하였다. 일제 강점기 제주지역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진 방애 놓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진드기 구제 및 전년도 잔초(殘草) 소각을 위해 적당한 시기를 골라 화입을 하도록 정하였다. 화입을 위해 먼저 목장 내에 남아 있는 잔돌을 제거하여 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목장 주위에 폭 오간(9m) 이상 풀을 베어내고 방화선을 설치해야 화입을 출원할 수 있었다. 화입이 이루어질 각 부분에 관계 마을주민을 동원, 배치하여 화입한 다음, 다른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화입을 허가원은 1월 말까지 읍면 공동목장연합회에 제출해야 했다. 화입 시기는 지대별 차이가 있었다. 해안지대 2월 하순, 중간지대 2월 초순, 산간지대 3월 중순의 온

www.kci.go.kr

화한 날을 골라 실시하였다.

공동목장 지대에서 방애 놓기는 해마다 이른 봄철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시덤불과 잡목이 제거되어 2차 초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제주도 2차 초지대는 매년 반복되는 방애 놓기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3. 테우리(牧者)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 목동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한다. 이들은 전문적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면서 제주도 전통 목축 목화를 만들어낸 주체라 할 수 있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 소를 돌보면 소 테우리, 말을 돌보면 말 테우리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기 소유 우마를 키우는 경우, 일정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 우마를 키우는 경우, 마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를 키우는 경우로 구분된다.

약간의 지역 차는 있지만 대체로 테우리들은 음력 3월 청명에 우마를 공동목장에 올린 다음 음력 9월 상강 이후 하늬바람이 불어 공동목장에 풀이 마를 때까지 우마 관리를 담당하였다. 인근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공동목장으로 올라가 방목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공동목장 내 만들어진 '테우리 막'에 잠시 거주하였다.

테우리들은 우마에 먹일 적당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 주변 지리를 세세히 알고 있었다. 특히 방목지 내에 위치한 오름과 하천, 언덕의 이름 그리고 우마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오름 위치, 물을 먹일 수 있는 용천수나 하천 위치, 기름진 풀이 자라고 있는 위치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방목지 내 지리적 환경에 대한 테우리의 정확한 인지능력은 방목 중인 우마의 생존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다.

한편 테우리들은 '테우리 코사'를 행하였다. 이것은 목축이 잘 되기를

www.kci.go.kr

기원하는 목축의례로 백중날(음력 7월)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목장 안에 있는 오름[16] 정상에 올라가 방목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사를 지냈다.

4. 숯 굽기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숯을 구워왔다. 연료에서부터 취사 난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까지 판매용 혹은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일반적으로 보리·조 수확 또는 촐 베기가 끝나고 숯을 만든다. 숯을 만드는 일을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라고 한다. 숯 묻을 철이 되면 산에 오른다. 작은 솥이나 냄비 등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노숙한다. 기간은 대개 1박 2일이다. '숯 굽기'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좋다. 안개나 구름으로 시야가 가려 연기를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낮에 나무를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숯가마에 불을 지폈다.

숯 굽기는 먼저 숯을 굽는데 가장 중요한 나무 준비부터 한다. 숯 재료로는 ᄎᆞ낭과 밤나무, 쿤낭, 가시낭, 틀낭, 서어낭, 볼레낭, 소리낭 등이 쓰였다. 숯 굽는 나무는 목질이 질겨야 가장 좋다. 숯불 기운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숯 묻을 나무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숯 굽기에 들어간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만, 판매용 숯은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 공기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낸다. 제주도에서의 숯 굽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시홍, 1998, 80-84쪽).

맨 먼저 가마터를 고른다. 숯가마를 만들 평지를 물색하여 평평하게 터 고르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땅바닥에 나뭇잎이나 자잘한 나뭇가지를 깐다. 이것은 숯을 추려낼 때 숯과 땅바닥을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에 덧돌을 만든다. 숯을 구울 가마터 면적을 가늠하여 그것에

16) 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 동산' 또는 '테우리 동산'

www.kci.go.kr

맞게 네 군데에 '덕돌'을 만든다. 숯가마에 불을 지피는 구멍을 '덕돌(화덕)' 또는 '숨골'이라 한다. '덕돌'은 솥덕에 앞쪽처럼 양쪽에 두 개 돌을 세우는데 이를 '어귓돌'이라 한다. 그리고 '어귓돌' 위에 가로 얹는 돌을 '덮돌'이라 한다. 하나의 숯가마에 보통 4개의 '덕돌'을 만드는데, 가마가 아주 큰 경우 5~6개의 '덕돌'을 만들기도 했다.

그다음에는 숯을 굽기 위해 마련해 둔 나무를 '덕돌'을 경계로 한 가마터에 쌓는다. 나무 쌓는 형식에 따라 숯 굽는 방식을 '누운 숯(곰숯)', '눌 숯', '선 숯'으로 구분한다. 첫째, '누운 숯' 또는 '곰 숯'은 숯 나무를 가마터 바닥에 눕혀 뜀틀처럼 쌓아 올려 흙을 덮는 형식을 말한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숯 굽기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숯을 많이 만들 수 없고 '냉발이'[17]가 많이 나온다. 둘째, '눌 숯'은 숯 나무를 '눌을 눌 듯이' 피라미드형으로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숯을 많이 구워낼 수 있다. 셋째 '선 숯'은 숯 나무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곧추세워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고급기술이며 상설 숯가마에서 만드는 숯은 모두 '선 숯'이다. 숯 나무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냉발이'가 가장 적어 많은 숯을 얻을 수 있다.

나무를 쌓을 때 숯 나무를 쌓은 겉면에 나뭇잎을 덮어 흙 스밈을 방지한다. 그리고 '눌 숯'이나 '선 숯'인 경우에 숯 나무가 무너지지 않게 덩굴로 나무를 빙빙 둘러 감은 다음 흙을 덮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숯 나무를 쌓고 흙을 덮으면 돔 모양의 숯가마 완성된다.

그러고 나서 숯 나무 위에 흙을 덮어 숯가마가 만들어지면 덕돌 구멍으로 불을 지핀다. 불길이 한꺼번에 골고루 돌아야 숯이 잘 된다. 불길이 숯가마에 골고루 돌았다고 판단되면 덕돌을 빼내 '숨골(입구)'을 흙으로 막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불길이 덜 돈 때 화덕을 막으면 '냉발이'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산에서 노숙하며 숯 굽는 작업이 끝나면 귀가한다. 숯을 구우러 다닐 때 사람 눈을 피해서 한적한 길을 이용한다. 2~3일 정도 지나서 숯가마를 해체하고 숯을 골라낸다. 가마를 허물어

17) 탄화가 덜 된 숯, 숯이 되다만 숯 나무를 '냉발이'라 한다.

www.kci.go.kr

숯을 골라내는 일은 밤에 한다. '숯 굴(숯가마)'을 세는 단위는 '눌' 혹은 '구뎅이(구덩이)'다. '숯 굴' 한 눌에 2인 1조, 3인 1조로 숯을 굽는다. 숯 생산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멩탱이(가마니)'다. 다른 사람과 한 조가 되어 숯을 만들었을 때 '멩탱이'로 나눈다. 한 눌(노적가리)에서 생산되는 숯의 양은 대중없다. 나무를 쌓아 불을 지피고 공기를 차단하는 시간 등 기술적 요소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5. 화전민의 사냥 문화

화전민들은 단백질과 털가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사냥했다(고광민, 1996, 320-324쪽). 사냥꾼은 "사농바치", "산쟁이", "산포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농바치들은 산속의 지리, 날씨 변화, 산짐승의 서식지와 속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화전민들은 혼자서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덫, 창 등의 도구를 이용해 사냥했다. 총과 올가미(코)는 노루, 꿩을 잡을 때 이용했다. 겨울이 되면 화전민들은 꿩 코나 노리코를 만들어 꿩과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설치했다. 족제비는 족덕(족제비 덫)을 이용해 잡았다. 지다리(오소리) 잡을 때는 창을 이용했다. 지다리는 주로 땅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굴속에 있는 것을 찔러 잡을 때 창을 사용했다.

화전민들은 노루사냥을 할 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죽 감티'를 머리에 썼다. 가죽 감티는 지다리 가죽(최상의 재료), 개 가죽, 노루 가죽을 이용해 만들었다. 가죽 조각들로 만든 끈이나 말총으로 만든 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사냥을 하기도 했다. 가죽 재료는 개 가죽, 소 가죽, 노루 가죽, 토끼 털, 지다리 가죽이었다. 가볍고 보온성이 컸으며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개 가죽을 주로 활용해 가죽 두루마기를 제작했다. 가죽 발레는 허벅다리까지 끼게 만든 일종의 가죽 각반으로, 하의 위에 가죽 발레를 착용했다. 가죽 버선은 털을 제거한 소가죽, 개 가죽으로 만들었다. 약도리(약돌기)는 노끈으로 만든 동고랑 주머니이며, 이것은

www.kci.go.kr

대나무로 제작한 도시락 차롱을 말한다(고광민, 1996, 320-324쪽).

Ⅳ.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

1. 화전 문화콘텐츠

그동안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아주 낮은 편이다. 이에는 구한말 몇 차례의 제주 민란과 '제주 4·3' 등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왜곡되고 숨겨진 집단적·개인적 악몽들이 한몫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전이 있었던 다른 지역, 특히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산간지역의 시, 군에서는 화전민 생활이나 문화를 포함해 화전민의 여러 면을 다시 부각하여 화전마을로 복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그곳에서는 화전민의 생활상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조상의 지혜와 슬기, 여유와 애환 등과 조상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과거 화전에는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주거 양식, 생산도구 등을 통해 화전마을 주민들이 협업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정연학, 2006, 19쪽), 제주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을 교체하는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화전 농업의 기술실천 과정에는 고대 이동 농경 중심의 자연적응과 자연이용 지식이 숙전지(熟田地) 농업기술과 다른 체계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했던 농민들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되면서 전승되어왔다. 화전 농업에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행한 초기 집단적 인력노동 위주 농업문화와 기술, 지식이 잘 남아 있다(배영동, 2013, 60쪽).

www.kci.go.kr

이같이 다양한 면에서 화전과 화전민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전마을을 복원한다면 이들 복원된 화전마을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 관광,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화전, 화전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윤석산, 2009, 204쪽).

실제로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난 2010년 「소백산 화전체험 테마 숲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18] 옛 화전민의 삶과 애환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화전민촌을 복원했다. 현재 소백산 화전민촌 화전 민가 9동,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 15동,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2동 15실과 숲속의 집 10동 등 모두 49개 객실의 산림휴양 시설을 운영 중이다. 소백산 화전민촌은 39~78㎡의 너와집 5동과 초가집 3동, 기와집 1동 등 모두 9동이 있으며 탈곡기와 디딜방아, 물지게 등 책에서만 보던 옛 농기구가 전시돼 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옛터를 복원하고 정리해 관광객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숙소로 탈바꿈한 화전민촌에서 옛 화전민들의 삶을 느끼며 일반 숙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입암면에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19]을 조성하여 화전, 화전 경작, 화전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곳에 전통생활체험관을 만들어 굴피집, 화전 농사, 쟁기질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전마을 복원사업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다음과 같이 화전민이 지녔던 여러 면모를 고려하여 화전민 복원에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전통사회 이해 교육이 될 수 있다(단양군청, 2010).

① 화전민들이 행하였던 특이한 농사방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

18)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19)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yyg.go.kr/museum).

www.kci.go.kr

하고 이것이 지닌 특성이나 면모를 설명한다.

② 화전민이 살던 다양한 집, 또는 화전민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복원하여 전시한다.

③ 화전민이 행하던 민속신앙을 복원한다. 예를 들면 마을 당이나 신목 등을 복원해 마을 입구에 전시한다.

④ 화전민들에게서 취재한 민속자료, 민요나 전설 등을 복원한다.

⑤ 산속에 들어와 화전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사상이나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⑥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부패한 관료의 횡포나 외세 침략 등 혼란과 전쟁으로 인하여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화전민이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화전, 화전민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슬픔과 아픔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민란과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화전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근대 사회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발굴은 역사와 문화, 문화자원과 IT 기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산업은 당연히 그 중심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형성, 잠재성, 활용성 같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로 여길 수 있는 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잘 나타내거나 지역주민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편화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

www.kci.go.kr

문화 자원으로 여길 수 있는 역사, 역사적 인물,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가치 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은영, 2020, 40쪽).

문화자원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맞춰 살아가는 고유한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환경과 만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거주'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거주'의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더 높은 가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게 된다.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적 역할도 수행한다(백은영, 2020, 42쪽).

그리고 문화자원은 그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과 같이 본래 존재하던 역사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활용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재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아울러 한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미한 문화적 요소의 체화과정을 통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제주지역에 적용한다면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고유한 제주의 역사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제주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삼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전마을 복원이나 화전(농경)체험관 설치, 화전 문화 축제 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화전문화와 화전 농경을 체험할 수 있다[20].

20) 제주 민예총에서는 무등이왓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제주 4·3' 당시 집터를 빌려, 그곳에 조를 심어 키웠다. 동광마을 주민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검질을 매며 조를 거뒀다. 그 수확물로 빚은 술은 제주 4·3 평화재단에 전달해 '제주 4·3' 때 돌아가신 삼만 영혼 영신님 신전에 올렸다.

www.kci.go.kr

구체적으로 보면, 화전민들이 살던 농막 같은 주거 생활, 메밀 등 식생활, 테우리, 방애, 숯 굽기, 사농바치, 약초 캐기 같은 부업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화전 및 화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 인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제주 근현대사의 일그러진 조각들과 파편들을 다시 모아 새로 맞추고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은 화전 개척 방식과 농업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목축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숯 굽기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약초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촌락과 가옥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음식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복식 문화콘텐츠 자료 등을 발굴하여 콘텐츠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전세와 민란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도 고려할 만하다. 즉, 화전세의 남징으로 발생했던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영화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화전민 목축 문화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국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산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상잣성과 화전 콘텐츠 자료, 밭갈쉐, 번쉐, 삯쉐 콘텐츠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화전 문화를 입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화전민 생활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화전민 전설이나 민담, 경험 등을 토대로 당시 화전민 생활을 이야기로 펼쳐내야 한다.

이 같은 시도는 IT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나 홀로그램 같은 가상현실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렛폼을 활용한 가상공간 구축이다. 옛 화전마을과 화전길, 숯가마, 계단식 밭 등을 드론 혹은 3D나 4D 입체 촬영하고, 거기에 이전에 촬영된 시대별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첨가하면 화전마을의 역사적 변화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전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콘텐츠 기반 가상공간에서 화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체험은 오프라인 방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www.kci.go.kr

2. 다크 투어리즘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의 또 다른 영역은 다크 투어리즘이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에 관한 사색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 그에 따른 유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유산관광은 그곳에서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서 유산의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미와 교육적 체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명혜, 2020, 6쪽).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제주 4・3’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정근식 교수는 2006년 ‘4・3 진상규명 운동, 제도화의 문화 자원화’를 발표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다크 투어리즘이 넓은 시각에서 일종의 문화유산 산업 또는 역사유산 산업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유산 산업이 기억의 보전을 근거로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윤식(2007)은 이재수의 난과 일본군 유적지, 4・3 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문화관광을 토대로 한국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까지 모색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2021년 6월 신축항쟁 120주년을 맞아 도민들을 아우르는 ‘범제주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는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축항쟁 기념 조형물과 표석 제작, 학술토론회, 장두 추모굿 등 기념행사, 교육 및 출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명을 찾지 못했으나 2001년 신축항쟁 100주년을 맞아 천주교와 화해 선언이

www.kci.go.kr

이뤄지며 신축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됐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제주 4·3'으로 인해 전부 파괴됐거나 소실된 마을공동체는 300여 자연마을, 2만여 호, 4만여 채이다.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 4·3' 때 집중적인 피해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사라진 자연마을을 말한다.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자 중산간 마을 사람 상당수는 살던 곳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복구하여 살기란 쉽지 않았다. 여전히 중산간 지역은 '공비 출몰지역'이라 하여 자주 소개(燒開)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제주 4·3'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아픈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어 많은 주민이 복귀하기를 꺼렸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각지에 분산되어 정착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원래 거주지 복귀를 꺼렸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사업으로 인해 육지에서 유입된 6·25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잃어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났다(제주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8).

2021년 '제주 4·3 연구소' 추가진상 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의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

www.kci.go.kr

밖에 대정면, 표선면에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에 각각 1개씩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됐다.

한편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화전세 징세(徵稅)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등 10곳에서 화전세(火粟田)를 징수하였다.

아울러 1899년 강봉헌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査成册)」을 보면, 상천(上川), 광평(廣坪), 광청(光淸), 서광청(西廣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牧場稅)를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21].

이를 토대로 보면 잃어버린 134개 마을 중에서 40여 개 중산간 마을이 화전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연마을 내에는 보통 4~5곳의 소규모 화전민 마을이 있었다[22]. 그리고 중간지대 마을에도 이동형 화전농사를 지었던 마을이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실제로 리생이, 드르구릉, 어우눌, 죽성, 웃인다, 물터진골, 종남밭, 장기동, 다랑쉬, 다랑쉬굴, 새가름, 버너리굴, 빌레가름, 곤을동, 범미왓, 원동, 고지우영, 자리왓, 빌레못, 웃동네, 하늬굴, 하동, 새나무골, 관전, 삼밭구석, 무등이왓, 오리튼물, 하논, 영남동 등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원동이나 천서동(냇서왓) 같은 자연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원지', '흔적비' 같은 표지석을 세워 사라져 가는 역사적 기억들을 주워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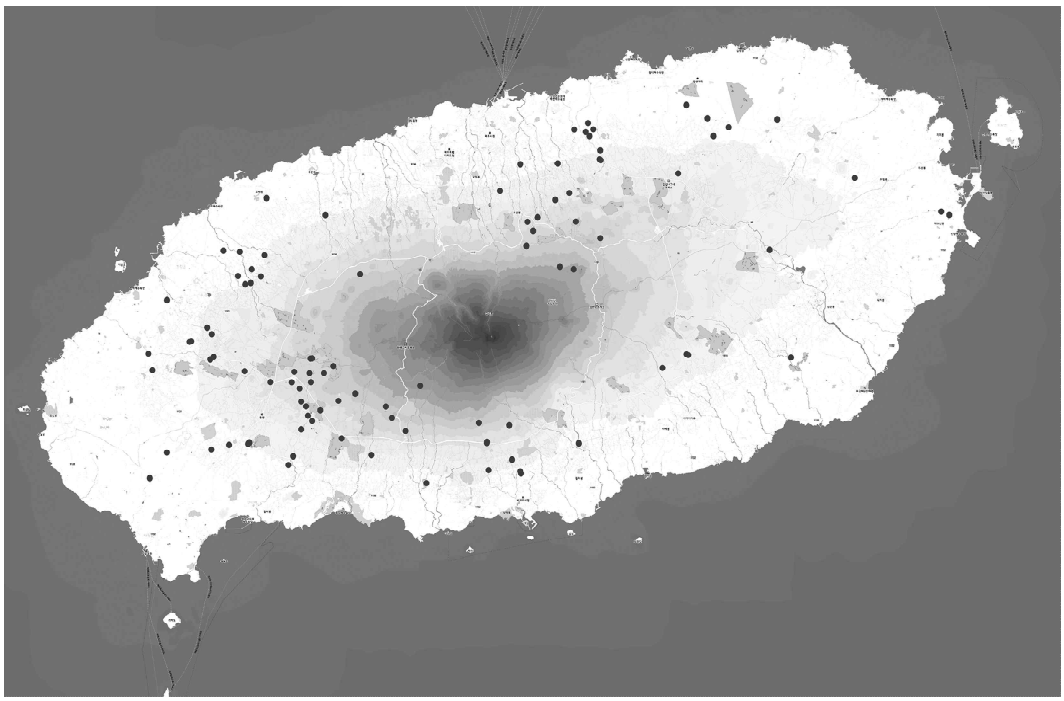
이곳 중산간 마을 표지석과 흔적비 비문에는 과거 그곳이 화전마을

21) 그리고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세(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鄕校), 단산원향교(簞山員鄕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鄕校)에서 지세를 징수했다.

22) 예를 들면 광평리에는 조가동, 고장친밭, 조가웨, 조개동, 숯굳동산 등이 있었다.

www.kci.go.kr

이었고 주민들이 화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단순히 추모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크 투어리즘의 성지로 승화시켜 복원하고 상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2〉 제주도 내 잃어버린 마을 분포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현장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길'을 조성하여 역사현장을 찾으려는 도내·외 탐방객에게 '제주 4·3'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4·3길'은 6곳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북촌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마을에 만들어졌다. 이들 마을 중 북촌마을을 뺀 나머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마을 등은 대표적인 잃어버린 화전마을이기도 하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외 탐방객들에게 4·3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4·3길' 추가 개통 필요성이 제기되어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www.kci.go.kr

한편 2019년 1월 28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주지역 숲길센터로 지정된 한라산 둘레길은 하천과 목장을 끼고 있으며 제주 문화와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계단식 밭, 상잣성, 밭 담, 숯가마 터 등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옛 화전마을 터가 멀지 않은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제주4·3연구소에서는 매년 ‘도민과 함께 걷는 제주 4·3 역사기행’을 마련하여 참가자와 함께 4·3사건과 관련된 유적지를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있다. 이런 노력이 모여 국내에서 제주가 다크 투어리즘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제주지역의 화전, 화전민, 화전마을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읽어버린 제주 화전마을’로 복원하고 ‘제주 화전길’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화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근현대 제주역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올바로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Ⅴ. 결론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주거’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주거’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이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적 역할을 한다. 그런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제주에 사는 우리는 제주 화전과 화전민, 화전마을에 대한 아무런 역사 지식도 없고 사소한 관심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농 선생은 다음과 같이 화전과 제주 화전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www.kci.go.kr

>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도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
>
>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가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

이에서 보면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은 제주 사회와 제주도민에게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DNA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주 근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바로잡기 위해 제주 화전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그에 대한 역사적 인식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단계인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활용'은 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주도의 화전 문화를 활용한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화전민 농법, 화전민 가옥, 화전민 숯 굽기와 사냥하기, 약초 캐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다음 화전민 생활사를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제주지역 화전민, 화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향후 이를 확대하여 제주의 화전민 생활사를 밝히는 이야기를 발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주 화전 문화를 기초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주 화전과 화전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 제대로 된 제주 근현대사의 실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만익,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 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호, 탐라문화연구소, 2013.

강만익, 「제주의 목축 문화」, 『제주학 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7.

고광민, 「수렵기술」,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고시홍, 「숯 굽는 이야기」, 『제주학』 창간호, 제주학연구소, 1998.

김명혜, 「거제 포로수용소의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김상호, 「한국농경 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기저 농경문화의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4, 서울대학교, 1979.

단양군청, 『화전마을 복원 계획서』, 단양군 소백산 화전체험 테마숲 운영·관리 조례안, 2010.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査成冊)』, 1899.

박정재·진종헌,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

배영동, 「화전 농업의 기술과 전승지식의 의의」, 『비교민속학』 No. 51, 비교민속학회, 2013.

백은영, 「제주馬의 역사문화 원형과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오문복, 「화전민들의 생활과 경작형태」, 『星主』 3호, 高氏宗門會總本部, 1987.

윤석산, 「화전민 연구 화전마을 복원을 위한 제언」, 『한국언어문화』 No 40,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정광중, 「제주도의 전작 농경문화」, 『제주도사연구』 Vol. 7, 제주도사연구회, 1998.

정연학, 「화전민의 농경문화」, 『極東先史古代の穀物』 2(小畑弘己 編), 熊本大學, 2006.

『濟州郡邑誌』(제주지도), 1899.

www.kci.go.kr

제주 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제주 4・3 추가진상 보고서』.
제주4・3 평화재단,『제주 4・3 추가진상 보고서』, 202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의 옛 지도』, 1996.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 1899.
진관훈,『제주의 화전 생활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22.

橋本傳左衛門,『火田調査報告書』, 조선총독부, 1928.
久間健一,『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東京農業綜合研究所, 1950.
宮塚利雄, “韓國 火田民에 관한 史的 研究”,『學術論叢』Vol. 4, 단국대 대학원, 1980.
善生永助,『火田の現狀』, 1926.
小田內通敏,『朝鮮の火田民』, 1923.
小泉昇平,「火田民生活狀態調査」,『朝鮮研究資料』, 1917.
松山利夫, 「濟州島の佃作農耕文化」,『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86.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 1944.
朝鮮總督府,『火田の現狀』, 1926.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1929.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bout cultu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Jin,, Gwan-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d utilize the cultural content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The study of modern history in the Jeju should stem from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are key heritage that can reveal the reality of Jeju's modern history. However, research of Jeju's slash-and-burn fields and social interest are low. Few basic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ow Korean slash-and-burn cultivation agriculture, which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illa Dynasty, has adapt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natural conditions,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of Jeju Island, and what its original form is now.

Therefore, we should systematically examine various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this, we should study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cultivation method, and lifestyle, culture, and folklo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in Jeju Island.

The basic step for this,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do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forms

* Jeju Technopark

www.kci.go.kr

based on the live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village and peopl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duce cultural contents for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using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of Jeju Island. For example,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ing method, house, charcoal baking and hunting, and herbal digging can be important key words for understanding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through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contents based on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and activation of dark tourism.

To this end,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n summarize the lives and culture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people in Jeju.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the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ultural content production and dark tourism.

Key-words: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Cultu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ontent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Dark tourism

논문투고일 2022. 10. 14.
심사완료일 2022. 11. 9.
게재확정일 2022. 11. 15.

www.kci.go.kr